

## 三陰三陽의 從化規律에 관한 研究

### A Research on the rule of following of three *Ŭm* and three *Yan*

金昊顯\*

#### 1. 緒論

三陰三陽의 從化規律은 六氣와 經絡, 臟腑間의 상호관계를 설명하는 중요한 개념으로 臟腑·經絡의 生理的 連繫와 病機 및 治療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sup>1)2)</sup>.

즉 人身은 天地의 氣運을 稟受하여 탄생한 것으로 天地의 六氣와 五行이 모두 具備되어 있으므로<sup>3)</sup> 天地의 氣運은 人體와 相通하고 있는 것이다<sup>4)</sup>. 따라서 人身에는 自然界의 六氣와 상응하는 六氣가 존재하고 있고<sup>5)</sup> 十二經脈과 臟腑가 三陰

三陽의 六氣와 相應하므로<sup>6)7)8)</sup>, 人身은 內外를 連絡하는 十二經脈을 중심으로 五臟六腑와 외부 환경이 六氣를 매개로 하여 相通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계가 人體 生理機能의 기초가 된다.

또한 經絡의 生理機能에 관하여 金<sup>9)</sup>과 申<sup>10)</sup>은 三陰三陽의 標本中氣에 따른 從化規律과 六氣의 從化規律을 바탕으로 한 經絡의 六氣調節關係를 통하여 六經의 氣化生理에 대한 연구를 보고한 바 있으며, 尹<sup>11)</sup>과 翟<sup>12)</sup>은 三陰三陽의 標本中氣가 갖는 疾病發生과의 관계 및 傷寒論에서의 응

435.

“人有客氣有同氣。客氣者。謂在人之六氣。同氣者。謂吾身中亦有此六氣。而與天氣之相同也”

6)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서울. 1985. p. 88.

“肝主春。足厥陰少陽主治……心主夏。手少陰太陽主治……脾主長夏。足太陰陽明主治……肺主秋。手太陰陽明主治……腎主冬。足少陰太陽主治”

7) 張隱庵. 黃帝內經素問集註. 上海科學技術出版社. 上海. 1991. p. 242.

“六臟六腑. 配合十二經脈. 十二經脈. 以應二陰二陽之氣”

8) 黃元御. 黃元御醫書十一種 下卷.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0. p. 37.

“人人同氣也. 經有十二. 六氣統焉”

9) 金丁雨. 金古菴. 經絡의 氣化生理에 관한 研究. 東醫生理學會誌. 1990. 5(1) : 119-149.

10) 申興默. 金古菴. 十二經脈의 六氣 調節生理에 관한 研究 (II). 東西醫學. 1991. 16(3) : 20-35.

11) 尹暢烈. 六氣의 標本中氣의 疾病發生機轉에 관한 研究. 大田大學校 韓醫學研究所 論文集. 1997. 5(2) : 535-542.

12) 翟恭東. 從氣化運動論《傷寒論》六經病變規律. 四川中醫. 1994. 11 : 3-5.

\* : 세명대학교 한의과대학 생리학교실

1) 張介賓. 張氏類經. 圖書出版 成輔社. 서울. 1982. p. 824-825.

2) 楊力. 中醫運氣學. 北京科學技術出版社. 北京. 1995. p. 90.

3)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서울. 1985. p. 238.

“東方生風……在天爲風. 在地爲木……在臟爲肝……南方生熱……在天爲熱. 在地爲火……在臟爲心……中央生濕……在人爲濕. 在地爲土……在臟爲脾……西方生燥……在天爲燥. 在地爲金……在臟爲肺……北方生寒……在天爲寒. 在地爲水……在臟爲腎”

4) 黃元御. 黃元御醫書十一種 下卷.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0. p. 37.

“火有六氣. 地有五行. 六氣者. 風熱暑濕燥寒. 五行者. 木火土金水. 在天成象. 在地成形. 六氣乃五行之魂. 五行即六氣之魄. 人爲天地之中氣. 秉天氣而生六腑. 秉地氣而生五臟. 六氣五行. 皆備於人身”

5) 張隱庵. 馬元臺. 黃帝內經素問. 成輔社. 서울. 1975. p.

용에 대한 연구를 보고한 바 있다. 또한 《圖註難經脈訣》<sup>13)</sup>에서는 標本中氣에 결합시킨 臟腑의 生理機能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으며, 《儒門事親》<sup>14)</sup>에서는 標本中氣의 從化規律을 바탕으로 疾病의 發生과 治療에 있어 關鍵이 되는 바를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人身의 經絡은 手足陰陽에 따른 臟腑의 배속과 三陰三陽이 결합되어 十二經脈의 체계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三陰三陽의 특성과 臟腑의 機能, 그리고 六氣의 特性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때 經絡의 生理機能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三陰三陽의 從化規律에서 근본적인 체계가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著者は 三陰三陽의 六氣發現規律에 대하여 발표한 바 있으나<sup>15)</sup>, 본 論文에서 구체적으로 三陰三陽의 從化規律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經脈의 六氣發現規律과 醫學에서 活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II. 本論

### 1. 三陰三陽의 標本中氣

《素問·六微旨大論》<sup>16)</sup>에 기재된 三陰三陽의 標本中氣에 대하여 馬蒔<sup>17)</sup>는 標本中氣의 中氣는

13) 王叔和. 圖註難經脈訣 一卷, 合成美術印刷廠, 台南, 中華民國六十六, p. 13-14

14) 張子和. 儒門事親 十四卷, 大星文化社, 서울, 1993, p. 13-14

15) 全吳顯. 經脈의 六氣發現規律에 관한 研究, 世明大學校 韓醫學研究所 論文集, 1998, 1 : 37-53.

16)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서울, 1985, p. 241.

“少陽之上, 火氣治之, 中見厥陰, 陽明之上, 燥氣治之, 中見太陰, 太陽之上, 寒氣治之, 中見少陰, 厥陰之上, 風氣治之, 中見少陽, 少陰之上, 熱氣治之, 中見太陽, 太陰之上, 濕氣治之, 中見陽明.”

17) 陳夢雷 外, 古今圖書集成 醫部全錄 第一冊,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2, p. 618.

“中氣者, 三陰二陽, 各猶夫婦之配合相守, 而人之臟腑經脈皆應之也. 故少陽本標之中見厥陰, 厥陰本標之中見少陽, 而互爲中氣相守, 則人之膽二焦少陽經亦絡肝心包, 肝心包厥陰經亦絡二焦而互交也. 陽明本標之中見太陰, 太陰本標之中見陽明, 而互爲

三陰三陽이 夫婦의 配合를 이루어 相守하는 바가 되고, 이에 臟腑와 經脈이 相應하므로 人身의 膽三焦는 肝心包와 氣가 相交하고, 胃大腸은 脾肺와 氣가 相交하고, 膀胱小腸은 腎心과 氣가 相交한다고 하였다.

張介賓<sup>18)</sup>은 三陰三陽은 각기 表裏가 있어 氣가 相通하므로 互根의 中氣가 있게 되는 것이라 하였다. 즉 少陽은 厥陰과 表裏가 되므로 相火이면서 風木의 氣化를 兼하는 것이고, 陽明은 太陰과 表裏가 되므로 燥金이면서 濕土의 氣化를 兼하는 것이고, 太陽은 少陰과 表裏가 되므로 寒水이면서 君火의 氣化를 兼하는 것이고, 厥陰은 少陽과 表裏가 되므로 風木이면서 相火의 氣化를 兼하는 것이고, 少陰은 太陽과 表裏가 되므로 君火이면서 寒水의 氣化를 兼하는 것이고, 太陰은 陽明과 表裏가 되므로 濕土이면서 燥金의 氣化를 兼하는 것이라 하여, 이는 陰陽表裏의 相合으로 人身에서 두 經脈이 서로 絡하여 合을 이루니 陰中에 陽이 존재하고 陽中에 陰이 존재한다는 뜻이라 하였다.

張隱庵<sup>19)</sup>은 風寒暑濕燥火의 六氣가 天의 陰陽

中氣相守, 則人之胃大腸陽明經亦絡脾肺, 脾肺太陰經亦絡胃大腸而互交也. 太陽本標之中見少陰, 少陰本標之中見太陽, 而互爲中氣相守, 則人之膀胱小腸太陽經亦絡腎心, 腎心少陰經亦絡膀胱小腸而互交也.”

18) 張介賓. 張氏類經, 圖書出版 成輔社, 서울, 1982, p. 824-825.

“此以下言三陰二陽, 各有表裏, 其氣相通, 故各有互根之中氣也. 少陽之本火, 故火氣在上, 與厥陰爲表裏, 故中見厥陰, 足以相火而兼風木之化也. 陽明之本燥, 故燥氣在上, 與太陰爲表裏, 故中見太陰, 足以燥金而兼濕土之化也. 太陽之本寒, 故寒氣在上, 與少陰爲表裏, 故中見少陰, 足以寒水而兼君火之化也. 厥陰之本風, 故風氣在上, 與少陽爲表裏, 故中見少陽, 足以風木而兼相火之化也. 少陰之本熱, 故熱氣在上, 與太陽爲表裏, 故中見太陽, 是以君火而兼寒水之化也. 太陰之本濕, 故濕氣在上, 與陽明爲表裏, 故中見陽明, 是以濕土而兼燥金之化也.” “蓋上之六氣, 爲三陰二陽之本, 下之三陰二陽, 爲六氣之標, 而兼見於標本之間者, 是陰陽表裏之相合, 而互爲中見之氣也. 其於人之應之者亦然, 故足太陽少陰二經爲一合, 而膀胱與腎之脈互相絡也, 足少陽厥陰爲二合, 而膽與肝脈互相絡也, 足陽明太陰爲三合, 而胃與脾脈互相絡也, 手太陽少陰爲四合, 而小腸與心脈互相絡也, 手少陽厥陰爲五合, 而二焦與心包絡之脈互相絡也, 手陽明太陰爲六合, 而大腸與肺脈互相絡也, 此卽一表一裏, 而陽中有陰, 陰中有陽之義.”

19) 張隱庵. 黃帝內經素問集注, 上海科學技術出版社, 上海.

으로 天氣가 本이 되어 上部에 위치하고 三陰三陽의 氣는 標가 되므로 下部에 위치한다고 하였다.

## 2. 三陰三陽의 從化規律

《素問·至真要大論》<sup>20)</sup>에 三陰三陽의 從化規律이 기재되어 있으니, 少陽과 太陰은 本을 따르고, 少陰과 太陽은 本을 따르기도 하고 標를 따르기도 하며, 陽明과 厥陰은 標나 本을 따르지 않고 中氣를 따른다고 하였다.

王冰<sup>21)</sup>은 少陽의 本은 火이고 太陰의 本은 濕으로 本末이 같으므로 本을 따르는 것이고, 少陰의 本은 熱이고 標는 陰이며 太陰의 本은 寒이고 標는 陽으로 本末이 다르므로 本을 따르거나 標를 따르는 것이며, 陽明의 中氣가 太陰이고 厥陰의 中氣가 少陽으로 本末과 中氣가 다르므로 標本을 따르지 않고 中氣를 따르는 것이라 하였다.

馬蒔<sup>22)</sup>는 少陽과 太陰이 本을 따르는 것에 대하여 少陽의 本이 火이고 太陰의 本이 濕으로 本

末이 같으므로 本을 따르는 것이니, 이는 本을 따라 氣化가 일어나는 것이라 하였다. 少陰과 太陽이 本을 따르기도 하고 標를 따르기도 하는 것은 少陰의 本이 熱이고 標는 陰이며, 太陽의 本이 寒이고 標는 陽으로 標本이 다르기에 本을 따르기도 하고 標를 따르기도 하는 것이니, 이는 本이나 標를 따라 氣化가 일어나는 것이라 하였다. 陽明과 厥陰이 中氣를 따르는 것은 陽明의 中氣가 太陰이고 厥陰의 中氣가 少陽으로 本末과 中氣가 다르므로 中氣를 따르는 것이니, 이는 中氣를 따라 氣化가 일어나는 것이라 하였다.

張介賓<sup>23)</sup>은 少陽과 太陰이 本을 따르는 것에 대하여 少陽의 本은 火이고 標는 陽이며, 太陰의 本이 濕이고 標는 陰으로 標本이 同氣이므로 本을 따르는 것이라 하였다. 그러나 少陽과 太陰도 中氣가 있음에도 中氣와의 관계를 말하지 않은 것은 少陽의 中氣가 厥陰 木으로 木火가 同氣이고 木이 火를 따라 化하므로 中氣를 따르지 않고, 太陰의 中氣가 陽明 金으로 土金이 相生하고 燥가 濕을 따라 化하므로 中氣를 따르지 않는다고 하였다.

少陰과 太陽이 本을 따르거나 標를 따르는 것은 少陰의 本은 熱이고 標는 陰이며, 太陽의 本이 寒이고 標는 陽으로서 標本이 異氣이므로 或本을 따르고 或 標를 따른다 하였다. 그러나 少陰과 太陽도 역시 中氣가 있으나 少陰의 中氣는 太陰 水이고 太陽의 中氣는 少陰 火이니 이들은 本과 같으면 標와 다르고, 標와 같으면 本과 다르기에 中氣를 따르지 않는다고 하였다.

陽明과 厥陰이 標本을 따르지 않고 中氣를 따

1991. p. 263.

“此言三陰三陽，有六氣之化，有上下之標本，有中見之標本也。風寒暑濕燥火，天之陰陽也。二陰三陽上奉之，故以天氣爲本而在上，以二陰三陽之氣，標見於下也”

20)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서울, 1985. p. 302.

“少陽太陰從本，少陽太陽從本從標，陽明厥陰，不從標本，從乎中也。”

21) 王 冰. 黃帝內經素問. 圖書出版 一中社, 서울, 1993. p. 246.

“少陽之本火，太陽之本濕，本末同，故從本也。少陰之本熱其標陰，太陽之本寒其標陽，本末異，故從本從標，陽明之中太陰，厥陰之中少陽，本末與中氣不同，故不從標本從乎中也。從本從標從中者，以其爲化生之用也。”

22) 陳夢雷 外. 古今圖書集成 醫部全錄 第一冊.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2. p. 822.

“六氣有從本而取之者，正以少陽之本火，太陰之本濕，本末同，故從本也。何也，以氣化從本而生也。有從本從標而取之者，正以少陰之本熱，其標陰，蓋君火生於午，午者一陰生之位，火本熱而其氣當陰生之初，故標本異，而君火屬少陰也。太陽之本寒，其標陽，蓋水居北方子，而子者一陽生之位，水本寒而其氣當陽生之初，故標本異而寒水屬太陽，故從本從標也。何也，以氣化從標本而生也。有不從標本而從中氣以取之者，陽明之中太陰，厥陰之中少陽，本末與中不同，故不從標本從乎中者。何也，以氣化從中氣而生也。”

23) 張介賓. 類經圖翼. 圖書出版 成輔社, 서울, 1982. p. 140.

“少陽太陰從本者，以少陽本火而標陽，太陰本濕而標陰，標本同氣，故當從本，然少陽太陰亦有中氣而不言從中者，以少陽之中，厥陰木也，木火同氣，木從火化矣，故不從中也。太陰之中，陽明金也，土金相生，燥從濕化矣，故不從中也。少陰太陽從本從標者，以少陰本熱而標陰，太陽本寒而標陽，標本異氣，故或從本，或從標，而治之有先後也。然少陰太陽亦有中氣，以少陰之中，太陽水也，太陽之中，少陰火也，同于本則異于標，同于標則異于本，故不從中氣也。至若陽明厥陰不從標本從乎中者，以陽明之中，太陰濕土也，亦以燥從濕化矣，厥陰之中，少陰火也，亦以木從火化矣，故陽明厥陰不從標本，而從中氣也。”

르는 것은 陽明의 中氣가 太陰 土로 燥가 濕을 따라 化하고, 厥陰의 中氣가 少陽 火로 木이 火를 따라 化하므로 從中氣한다고 하였다.

張隱庵<sup>24)</sup>은 太陰과 少陽의 경우는 太陰의 本이 陰濕이고 標도 陰이며, 少陽의 本이 陽火이고 標도 陽이기에 本을 따라 氣化하므로 太陰과 少陽은 本을 따른다 하였다.

少陰과 太陽의 경우는 少陰의 本이 熱이고 標는 陰이며, 太陽의 本이 寒이고 標는 陽이니, 이는 陰中에 陽이 있고 陽中에 陰이 있는 것으로 水火寒熱의 氣化가 모두 일어나므로 少陰과 太陽이 本을 따르기도 하고 標를 따르기도 한다고 하였다.

陽明과 厥陰의 경우는 陽明이 四時의 秋季를 主하고 中氣인 太陰이 四氣의 清秋를 主하므로 陽明은 中氣를 따라 氣化하는 것이고, 厥陰은 兩陰이 모두 衰盡하는 時期로 陰이 다하면 一陽이 始生하므로 厥陰은 中氣를 따라 氣化한다고 하였다.

高士宗<sup>25)</sup>은 少陽과 太陰은 本을 따라 氣化하는데, 少陽의 氣가 火熱이고 太陰의 氣가 陰濕으로 모두 本氣를 따라 氣化가 일어난다고 하였다.

少陰과 太陽은 標와 本을 따라 氣化가 일어나는데, 少陰의 本은 熱이고 標는 陰이며 太陽의 本은 寒이고 標는 熱이므로 寒熱陰陽의 氣가 모두 갖추어져 있어 本을 따르거나 標를 따라 氣化

가 일어난다고 하였다.

陽明과 厥陰은 標와 本을 따르지 않고 氣化하는데, 陽明은 兩陽이 合하여 明을 이루어 陽이 極盛한 상태이므로 燥를 따르지 않고 中氣인 太陰을 따라 氣化가 일어나고, 厥陰은 兩陰이 衰盡하여 陰이 極衰한 상태이므로 風을 따르지 않고 中氣인 少陽을 따라 氣化가 일어난다고 하였다.

### 3. 經脈의 氣化

黃元御<sup>26)</sup>은 十二經中에는 司化經이 여섯이고 從化經이 여섯으로, 從化經은 經絡의 氣와 臟腑의 氣가 다르기에 氣化를 주관하지 않으며, 司化經이 經絡의 氣와 臟腑의 氣가 同一하여 氣化를 주관한다고 하였다.

즉 足厥陰과 手厥陰에 있어서 足厥陰이 司化經으로 氣化를 주도하고 手厥陰은 從化經으로 足厥陰을 따라 氣化하므로 厥陰經은 風을 주관한다.

手少陽과 足少陽에 있어서 手少陽은 司化經으로 氣化를 주도하고 足少陽은 從化經으로 手少陽을 따라 氣化하므로 少陽經은 相火를 주관한다.

手少陰과 足少陰에 있어서 手少陰이 司化經으로 氣化를 주도하고 足少陰은 從化經으로 手少陰을 따라 氣化하므로 少陰經은 熱을 주관한다.

足太陽과 手太陽에 있어서 足太陽이 司化經으로 氣化를 주도하고 手太陽은 從化經으로 足太陽을 따라 氣化하므로 太陽經은 寒을 주관한다.

足太陰과 手太陰에 있어서 足太陰은 司化經으로 氣化를 주도하고 手太陰은 從化經으로 足太陰을 따라 氣化하므로 太陰經은 濕을 주관한다.

手陽明과 足陽明에 있어서 手陽明은 司化經으로

24) 張隱庵. 黃帝內經素問集注. 上海科學技術出版社, 上海. 1991. p. 353.

“風寒暑濕燥火, 六氣爲本, 三陰三陽爲標. 陰濕之上而標見太陰之陰, 初陽之火而標見少陽之陽, 是標之陰陽, 從本化生, 故太陰少陽從本, 少陰之本熱而標見少陰之陰, 太陽本寒而標見太陽之陽, 陰中有陽, 陽中有陰, 有水火寒熱之化, 故少陰太陽從本從標, 陽明之上, 燥氣治之, 中見太陰, 厥陰之上, 風氣治之, 中見少陽, 蓋陽明司四時之秋令, 而太陰主四氣之清秋, 厥陰爲兩陰交盡, 陰盡而一陽始生, 是以陽明厥陰, 從中見之化也.”

25) 高士宗. 皇帝素問直解, 科學技術文獻出版社, 北京, 1982. p. 677.

“氣有從本者, 少陽太陰是也, 少陽之氣有火熱, 太陰之氣有陰濕, 皆從本紀以爲化生也, 氣有從標本者, 少陰太陽是也, 少陰本熱標陰, 太陽本寒標熱, 有寒熱陰陽之氣, 故從本從標, 以爲生化也, 氣有不從標本者, 陽明厥陰是也, 兩陽合明, 陽之極矣, 無取乎燥, 從中見太陰之氣, 以爲化生, 兩陰交盡, 陰之極矣, 無取乎風, 從中見少陽之氣, 以爲生化也.”

26) 黃元御. 黃元御醫書十一種 下卷,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0. p. 37-39.

“經有十二, 司化者六經, 從化者六經, 從化者不司氣化, 總以司化者爲主, 故十二經統於六氣.”

“人人同氣也, 經有十二, 六氣統焉, 足厥陰以風木主令, 手厥陰火也, 從母化氣而爲風, 手少陽以相火主令, 足少陽木也, 從子化氣而爲暑, 手少陰以君火主令, 足少陰水也, 從妻化氣而爲熱, 足太陽以寒水主令, 手太陽火也, 從夫化氣而爲寒, 足太陰以濕土主令, 手太陰金也, 從母化氣而爲濕, 手陽明以燥金主令, 足陽明土也, 從子化氣而爲燥.”

로 氣化를 주도하고 足陽明은 從化經으로 手陽明을 따라 氣化하므로 陽明經은 燥를 주관하므로 三陰三陽의 六經이 六氣를 주관한다고 하였다.

#### 4. 六經의 氣化規律

黃元御<sup>27)</sup>는 十二經脈은 本氣의 衰旺에 따라 氣化가 일어난다 하였는데, 즉 足厥陰이 司化經으로 風木의 氣化를 주관하여 手厥陰이 風으로 氣化하는데, 厥陰經病에 陽虛일 경우는 手厥陰이 風木으로 氣化하지만 陽盛일 경우는 手厥陰이 風으로 氣化하지 않고 少陽의 火를 따라 氣化한다.

足太陰이 司化經으로 濕土의 氣化를 주관하여 手太陰이 濕으로 氣化하는데, 太陰經病에 陽虛일 경우는 手太陰이 濕土로 氣化하지만 陽盛일 경우는 手太陰이 濕으로 氣化하지 않고 陽明의 燥를 따라 氣化한다.

足太陽이 司化經으로 寒水의 氣化를 주관하여 手太陽이 寒으로 氣化하는데, 太陽經病에 陽虛일 경우는 手太陽이 寒수로 氣化하지만 陽盛일 경우는 手太陽이 寒으로 氣化하지 않고 少陰의 熱을 따라 氣化한다.

手少陰이 司化經으로 君火(熱)의 氣化를 주관하여 足少陰이 熱으로 氣化하는데, 少陰經病에 陽盛일 경우는 足少陰이 熱로 氣化하지만 陽虛일 경우는 足少陰이 熱로 氣化하지 않고 太陽의 寒을 따라 氣化한다.

手少陽이 司化經으로 相火의 氣化를 주관하여 足少陽이 相火로 氣化하는데, 少陽經病에 陽盛일 경우는 足少陽이 相火로 氣化하지만 陽虛일 경우는 足少陽이 相火로 氣化하지 않고 厥陰의 風을 따라 氣化한다.

手陽明이 司化經으로 燥金의 氣化를 주관하여 足陽明이 燥로 氣化하는데, 陽明經病에 陽盛일 경우는 足陽明이 燥로 氣化하지만 陽虛일 경우는 足陽明이 燥로 氣化하지 않고 太陰의 濕을 따라 氣化한다고 하였다.

### III. 考察

#### 1. 三陰三陽의 從化規律

標本中氣는 六氣와 六經을 生理 活動中の 特性으로 配屬시키는 規律<sup>29)</sup>로 天의 六氣가 本이 되고 本之下의 三陰三陽이 標가 되며 標本之間의 氣가 中氣가 된다<sup>30)</sup>.

標本中氣의 의미에 있어 本은 原·始의 뜻으로 天의 六氣이며 天真元氣가 化生된 것이고, 標는 標識·符號·末·現象의 의미로 六氣에 의해 발생한 氣候와 物象의 특징을 나타내며, 中氣는 三陰三陽과 表裏를 이루는 相通하는 기운으로 氣化의 盛衰를 조절하는 작용을 갖는다<sup>31)</sup>. 따라서 臟腑·經絡은 標本中氣와 表裏·屬絡 關係를 통하여 標本の 氣와 中氣의 氣化를 겸하고 있다.

標本中氣에 따른 三陰三陽의 從化規律에 대한 분석은 三陰三陽의 標本이 갖는 陰陽屬性을 비교

27) 黃元御, 黃元御醫書十一種 下卷,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0, p. 39.

“病則或見司化者之本氣, 或見從化者之本氣, 或司化者而見從化之氣, 或從化者而見司化之氣, 全視乎本氣之衰旺焉”

28) 黃元御, 黃元御醫書十一種 中卷,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0, p. 542.

“人之六氣, 不病則不見, 病則一經之氣見, 或自見其令氣, 或自見其本氣, 或主令者而見從化之氣, 或從化者而見主令之氣, 視其經氣之盛衰焉, 厥陰太陰太陽, 足經主令而手經化氣者也, 足厥陰風木也, 手厥陰之火, 應從風化, 而厥陰經病, 陽虛則手厥陰化氣於風木, 陽盛則手厥陰不從風化而從少陽之暑化, 足太陰濕土也, 手太陰之金, 應從濕化, 而太陰經病, 陽虛則手太陰化氣於濕土, 陽盛則手太陰不從濕化而從陽明之燥化, 足太陽寒水也, 手太陽之火, 應從寒化, 而太陽經病, 陽虛則手太陽化氣於寒水, 陽盛則手太陽不從寒化而從少陰之熱化, 少陰少陽陽明, 手經主令而足經化氣者也, 足少陰水也, 水之氣爲寒, 少陰經病, 陽盛則足少陰化氣於君火, 陽虛則不從火化而從太陽之寒化, 足少陽木也, 木之氣爲風, 少陽經病, 陽盛則足少陽化氣於相火, 陽虛則不從火化而從厥陰之風化, 足陽明土也, 土之氣爲濕, 陽明經病, 陽盛則足陽明化氣於燥金, 陽虛則不從燥化而從太陰之濕化, 主令者盛則化氣者從之, 化氣者盛則主令者從之, 總之不離乎本氣之虛實耳.”

29) 若 秋, 張志聰·陳修園傷寒氣化說之異同論, 福健中醫藥 1988, 19(6): 8-11.

30) 高士宗, 黃帝素問直解, 科學技術文獻出版社, 北京, 1982 p. 482.

31) 金先熙 外, 東醫生理學, 慶熙大學校 出版局, 서울, 1993 pp. 127-128.

하고, 이를 中氣의 標本에 따른 陰陽屬性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으므로 三陰三陽에 대하여 모두 同一한 방법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少陽과 太陰의 從化規律

少陽과 太陰이 從本하는 것은 少陽이 본은 火이고 標는 陽이며, 太陰은 본이 濕이고 標는 陰으로, 少陽의 標本이 陰陽屬性에 있어 모두 陽에 해당하고 太陰의 標本이 陰陽屬性에 있어 모두 陰에 해당하므로 少陽과 太陰은 標本の 陰陽屬性이 같기 때문에 本氣를 따라 氣化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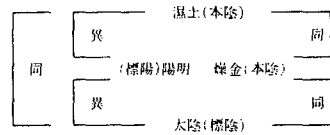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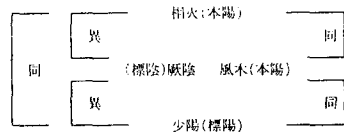
少陽과 太陰이 갖는 中氣와의 관계에서 少陽의 中氣가 厥陰 木으로 木火가 同氣이고 木이 火를 따라 化하므로 從中하지 않고, 太陰의 中氣가 陽明 金으로 土金이 相生하고 燥가 濕을 따라 化하므로 從中하지 않는다고 하였는 바, 中氣의 陰陽屬性和 비교하여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少陽은 標가 陽이고 本(相火)이 또한 陽으로 標本이 同氣이면서, 中氣인 厥陰의 標本이 갖는 陰陽屬性和 비교하면 厥陰의 標(厥陰)는 陰으로 少陽의 標本과 異氣이지만 本(風木)은 陽으로 少陽의 標本과 同氣이기에 本을 따라 氣化하게 되는 것이다.

太陰은 標가 陰이고 本(濕土)이 또한 陰으로 標本이 同氣이면서, 中氣인 陽明의 標本이 갖는 陰陽屬性和 비교하면 陽明의 標(陽明)는 陽으로 太陰의 標本과 異氣이지만 本(燥金)은 陰으로 太陰의 標本과 同氣이기에 本을 따라 氣化하게 되는 것이다.

즉, 少陽과 太陰은 標本の 陰陽屬性和이 同氣이기에 從本하는 것이므로 中氣와의 관계를 비교할 필요성을 갖지 않으며, 標氣와 本氣中에서 本氣를 중심으로 氣化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太陽, 少陰에서와 같이 張介賓의 방식대로 中氣와의 陰陽屬性和을 비교하였을 때 少陽과 太陰의 標本은 中氣의 本과 陰陽屬性和이 일치하므로 從本하는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이를 圖式化하면 아래와 같다.



이것은 모든 變化가 裏面의 本質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고 表面에 나타나는 現象만 볼 수 있는 것으로 現象面(作用, 表面)과 內容面(本質, 裏面)이 서로 相反된 象을 나타내기 때문에 表面이 陰作用을 하면 裏面은 陽作用을 하고 表面이 陽作用을 하면 裏面은 陰作用을 하는 것<sup>32)</sup>이라는 법칙으로 볼 때 少陽과 太陰은 本質(六氣)과 現象(三陰三陽)의 陰陽 屬性和이 동일하므로 從本한다는 것은 本質을 중심으로 氣化가 일어나게 됨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標本の 陰陽屬性和이 量的인 면이나 質的(勢力)인 면에서 過少가 아닌 동등한 상태라면 少陽과 太陰은 標本の 陰陽屬性和이 동일한 상태이고 中氣의 本이 陰陽屬性和이 동일하여 加勢하는 입장이 되므로 本氣(本質)를 중심으로 氣化하게 되는 근거를 만들 수 있다.

또한 少陽은 從本하여 相火를 중심으로 氣化하고, 少陽과 表裏를 이루는 厥陰이 從中氣하여 역시 相火를 중심으로 氣化하므로 足少陽膽, 手少陽三焦, 足厥陰肝, 手厥陰心包가 相火를 중심으로 氣化하는 風火相生의 관계를 설정할 수 있게 된다.

太陰은 從本하여 濕을 중심으로 氣化하고, 太陰과 表裏를 이루는 陽明이 從中氣하여 역시 濕을 중심으로 氣化하므로 足太陰脾, 手太陰肺, 足陽明胃, 手陽明大腸이 濕을 중심으로 氣化하는 燥濕의 조절관계를 설정할 수 있게 된다. 한편으로는 燥의 太過는 濕의 不足이고, 濕의 太過는

32) 韓東錫. 宇宙變化의 原理. 행림출판. 서울. 1985. p. 120 185-186.

燥의 不足으로, 濕의 조절이 燥의 조절이 되는 것이고, 燥의 조절이 濕의 조절이 되므로, 太陰이 從中氣하고 陽明이 從本하여 燥를 중심으로 氣化하는 관계를 설정하여도 동일한 燥濕의 조절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그러나 太陰과 陽明의 標本の 陰陽屬性을 비교하였을 때, 다른 三陰三陽과 동일한 규칙을 설정할 수 없게 되므로 太陰이 從本하고 陽明이 從中氣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 2) 少陰과 太陽의 從化規律

少陰과 太陽이 從本 從標하는 것은 少陰이 본은 熱이고 標는 陰이며, 太陽은 본이 寒이고 標는 陽으로, 陰陽屬性에 있어서 少陰의 본은 陽이고 標는 陰이며, 太陽의 본은 陰이고 標는 陽으로 標本の 陰陽屬性이 다르기 때문에 標를 따라 氣化하거나 본을 따라 氣化한다는 것이다.

少陰과 太陽이 갖는 中氣와의 관계를 보면 少陰의 中氣는 太陽 水이고 太陽의 中氣는 少陰 火이니, 이들은 본과 같으면 標와 다르고 標와 같으면 본과 다르기에 모두 從中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中氣의 陰陽屬性과 비교하여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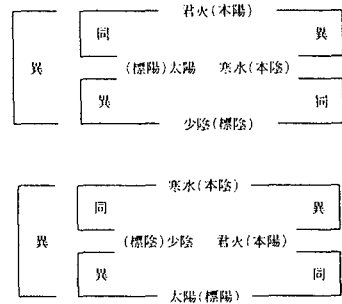
少陰은 標가 陰이고 本(君火)은 陽으로 標本이 異氣이기에 中氣인 太陽의 標本이 갖는 陰陽屬性과 비교하면, 少陰의 標陰과 中氣인 太陽의 本陰(寒水)이 同氣이나 標陽(太陽)과는 異氣이고, 少陰의 本陽(君火)과 中氣인 太陽의 標陽이 同氣이나 本陰(寒水)과는 異氣이므로 中氣를 따르지 않고 少陰의 標나 본을 따라 氣化한다.

太陽은 標가 陽이고 本(寒水)은 陰으로 標本이 異氣이기에 中氣인 少陰의 標本이 갖는 陰陽屬性과 비교하면, 太陽의 標陽과 中氣인 少陰의 本陽(君火)이 同氣이나 標陰(少陰)과는 異氣이고, 太陽의 本陰(寒水)이 中氣인 少陰의 標陰과 同氣이나 本陽(君火)과는 異氣이므로 中氣를 따르지 않고 太陽의 標나 본을 따라 氣化한다.

즉 少陰과 太陽은 標本の 陰陽屬性이 異氣이므로 少陽과 太陰에서와 같이 從本할 수 없는 것이니 中氣와의 관계를 통하여 氣化의 規律이 정하

여진다. 그러나 中氣와 陰陽屬性을 비교하였을 때 少陽과 太陰의 경우처럼 標本の 屬性과 中氣의 屬性이 일치하는 바를 찾을 수 없으며, 陽明과 厥陰의 경우처럼 氣化의 중심이 되는 本氣와 中氣의 標本이 갖는 屬性과 일치하는 바도 없으므로 少陰과 太陽은 從本從標하는 것이다.

이를 圖式化하면 아래와 같다.



少陽과 太陰에서 살펴 본 變化의 법칙에서와 같이 少陰과 太陽은 標本の 陰陽屬性이 다르므로 本氣를 중심으로 氣化가 이루어질 수 없으며, 中氣의 標本이 갖는 陰陽屬性이 달라 少陰과 太陽의 標本에 加勢하는 입장이 아닌 동등한 상태이므로 少陰과 太陽은 從本從標하여 氣化가 일어나게 됨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少陰과 太陽은 從本從標하여 寒과 熱을 중심으로 氣化하고, 少陰과 太陽이 서로 表裏를 이루어 寒과 熱을 중심으로 氣化하므로 足少陰腎, 手少陰心, 足太陽膀胱, 手太陽小腸이 寒熱의 조절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된다.

한편 少陰과 太陽의 標本이 갖는 陰陽屬性이 다르므로 厥陰과 陽明에서와 같이 從中氣할 수도 있으나, 標本の 陰陽屬性을 비교하였을 때 陰陽屬性이 치중하는 바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從中氣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또한 從中氣하게 되면 少陰은 中氣인 太陽을 중심으로 氣化하지만 太陽 역시 從中氣하여 少陰을 중심으로 氣化하여 일정한 規律를 설정할 수 없이 계속 순환하게 되므로 從中氣할 수 없다.

### 3) 陽明과 厥陰의 從化規律

陽明과 厥陰이 從中氣하는 것은 陽明이 本은 燥이고 標는 陽이며, 厥陰은 本이 風이고 標는 陰으로, 陰陽屬性에 있어서 陽明의 本은 陰(燥)이고 標는 陽이며, 厥陰의 本은 陽(風)이고 標는 陰으로 標本の 陰陽屬性이 다르기 때문에 中氣를 따라 氣化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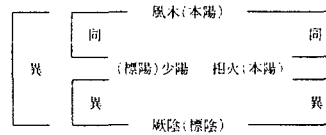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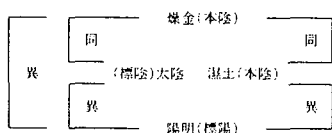
陽明과 厥陰이 갖는 中氣와의 관계를 보면 陽明의 中氣가 太陰 濕土로 燥가 濕을 따라 化하고, 厥陰의 中氣가 少陽 火로 木이 火를 따라 化하므로 從中氣한다고 하였는데, 中氣의 陰陽屬性和 비교하여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陽明은 標가 陽이고 本(燥金)은 陰으로 標本이 異氣이기에 中氣인 太陰의 標本이 갖는 陰陽屬性和 비교하며, 太陰의 標가 陰이고 本(濕土)이 역시 陰으로 陽明의 本陰(燥金)과 同氣이고 相生關係에 있으므로 中氣를 따라 氣化한다.

厥陰의 標가 陰이고 本(風木)은 陽으로 標本이 異氣이기에 中氣인 少陽의 標本이 갖는 음양속성과 비교하면, 少陽의 標가 陽이고 本(相火)이 역시 陽으로 厥陰의 本陽(風木)과 同氣이고 相生關係에 있으므로 中氣를 따라 氣化한다.

즉 陽明과 厥陰은 標本の 陰陽屬性和이 異氣이므로 少陽과 太陰에서와 같이 從本할 수 없는 것이니 中氣와의 관계를 통하여 氣化의 規律이 정하여진다. 그러나 中氣와 陰陽屬性和을 비교하였을 때 少陰과 太陽의 경우와는 다르게 氣化의 中心이 되는 陽明과 厥陰의 本氣와 中氣의 標本이 갖는 屬性和이 일치하고 있으므로 陽明과 厥陰이 從中氣하는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이를 圖式化하면 아래와 같다.



앞에서 살펴 본 變化의 法則에서와 같이 陽明과 厥陰은 標本の 陰陽屬性和이 다르므로 本氣를 중심으로 氣化가 이루어질 수 없으며, 中氣의 標本이 갖는 陰陽屬性和이 陽明과 厥陰의 本氣와 동일하므로 陽明과 厥陰의 本氣가 中氣인 太陰과 少陽에 加勢하는 입장이 되므로 陽明과 厥陰은 從中氣하여 氣化가 일어나게 됨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陽明은 從中氣하여 濕을 중심으로 氣化하고, 陽明과 表裏를 이루는 太陰이 從本하여 역시 濕을 중심으로 氣化하므로 足陽明胃, 手陽明大腸, 足太陰脾, 手太陰肺가 濕을 중심으로 氣化하는 燥濕의 조절關係를 설정할 수 있게 된다.

厥陰은 從中氣하여 相火를 중심으로 氣化하고, 厥陰과 表裏를 이루는 少陽이 從本하여 역시 相火를 중심으로 氣化하므로 足厥陰肝, 手厥陰心包, 足少陽膽, 手少陽三焦가 相火를 중심으로 氣化하는 風火相生의 關係를 설정할 수 있게 된다.

한편 陽明과 厥陰의 標本이 갖는 陰陽屬性和이 다르므로 少陰과 太陽에서와 같이 從本從標할 수도 있으나, 標本の 陰陽屬性和을 비교하였을 때 陰陽屬性和이 치중하는 바를 분명히 찾아볼 수 있으므로 從本從標할 수는 없다. 또한 從本從標하게 되면 陽明은 表裏가 되는 太陰과 무관하게 되어 燥濕의 조절關係를 형성할 수 없으며, 厥陰은 表裏가 되는 少陽과 무관하게 되어 風火相生의 關係를 형성할 수 없어 臟腑·經絡의 表裏關係가 설정되지 않으므로 從本從標할 수 없다.

이상에서 살펴본 三陰三陽의 從化規律은 標本이 갖는 陰陽屬性和과 中氣의 標本이 갖는 陰陽屬性和의 상호關係를 종합하였을 때, 標本中에서 標氣에 비하여 本氣를 중심으로 氣化의 規律이 설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一次的으로 標와 本의 陰陽屬性和이 同一한가의 여부가 從本하여 氣化



하는 관건이 되고 있으며, 二次的으로 標本의 陰陽屬性이 다를 경우 中氣의 標本이 갖는 陰陽屬性和 同一한가의 여부가 氣化規律의 관건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經脈의 六氣發現

三陰三陽의 從化規律에서 나타난 바는 三陰三陽이 각각 六氣중 하나의 氣運을 주관하여 氣化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疾病이 발생하였을 경우 司化經의 本氣가 나타날 수도 있고 從化經의 本氣가 나타날 수도 있으며, 司化經이 從化經의 氣를 드러낼 수도 있고 從化經이 司化經의 氣를 드러낼 수도 있으니 氣化는 모두 本氣의 盛衰에 左右되는 것이다<sup>33)</sup>라고 하였다. 이는 十二經脈이 臟腑의 表裏關係를 통하여 中氣의 氣運을 겸하고 있으며, 또한 三陰三陽과 臟腑의 配屬에 따라 氣化의 規律이 설정되므로 각각의 十二經脈을 중심으로 한 氣化規律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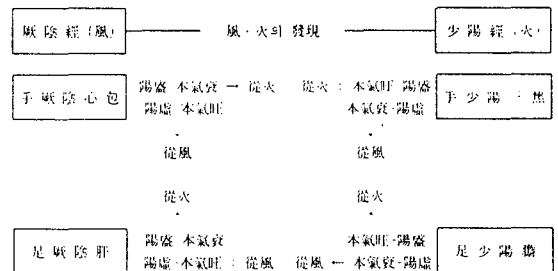
### 1) 厥陰經과 少陽經의 氣化

足厥陰이 司化經으로 風의 氣化를 주관하고 手厥陰은 從化經이 되어 역시 風으로 氣化하여 厥陰經이 風의 氣化를 주관하지만, 從化經에 있어서 陽虛일 경우는 手厥陰이 風으로 氣化하나 陽盛일 경우는 少陽의 相火를 따라 氣化한다. 또한 手少陽이 司化經으로 相火의 氣化를 주관하고 足少陽이 從化經으로 相火로 氣化하여 少陽經이 相火의 氣化를 주관하지만, 從化經에 있어서 陽盛일 경우는 足少陽이 相火로 氣化하나 陽虛일 경우는 厥陰의 風을 따라 氣化한다.

따라서 厥陰經과 少陽經에 있어 氣化의 관건이 되는 陽虛와 陽盛의 의미를 厥陰經과 少陽經이 주관하는 氣運이고 相互 中氣의 관계에 있는 風과 相火를 대입하여 해석하고자 한다. 즉 厥陰과

少陽은 風과 相火를 겸하고 있으므로 風과 火 자체를 陰陽의 屬性에 적용하였을 때 火를 陽에 배속할 수 있는 바, 陽虛는 火의 氣運이 衰弱하므로 厥陰의 本氣인 風이 旺盛하여 氣化를 주도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陽盛은 火의 氣運이 旺盛하고 風이 衰弱하므로 少陽의 本氣인 火가 氣化를 주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厥陰經과 少陽經은 陽虛하여 風의 氣運이 旺盛하면 風을 따라 氣化하지만 陽盛하여 相火의 氣運이 旺盛하면 모두 相火를 따라 氣化하게 되므로, 經脈의 本氣가 旺盛하면 本氣를 따라 氣化하게 되고 本氣가 衰弱하면 中氣를 따라 氣化하게 되는 관계임을 알 수 있다.

이를 圖式化하면 아래와 같다.



### 2) 太陰經과 陽明經의 氣化

足太陰이 司化經으로 濕의 氣化를 주관하고 手太陰이 從化經으로 濕으로 氣化하여 太陰經이 濕의 氣化를 주관하지만, 從化經에 있어서 陽虛일 경우는 手太陰이 濕으로 氣化하나 陽盛일 경우는 陽明의 燥를 따라 氣化한다. 또한 手陽明이 司化經으로 燥의 氣化를 주관하고 足陽明이 從化經으로 燥로 氣化하여 陽明經이 燥의 氣化를 주관하지만, 從化經에 있어서 陽盛일 경우는 足陽明이 燥로 氣化하나 陽虛일 경우는 太陰의 濕을 따라 氣化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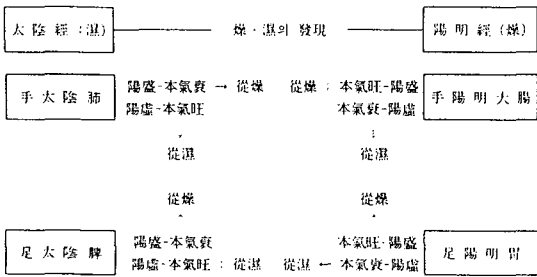
따라서 太陰經과 陽明經에 있어 氣化의 관건이 되는 陽虛와 陽盛의 의미를 太陰經과 陽明經이 주관하는 氣運이고 相互 中氣의 관계에 있는 濕과 燥를 대입하여 해석할 수 있다. 즉 太陰과 陽明은 燥와 濕을 겸하고 있으므로 燥와 濕 자체를

33) 黃元御, 黃元御醫書十一種 下卷,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0, p. 39.

“病則或見司化者之本氣, 或見從化者之本氣, 或司化者而見從化之氣, 或從化者而見司化之氣, 全視乎本氣之衰旺焉”

陰陽의 屬性에 따라 적용하였을 때 燥를 陽에 배속할 수 있는 바, 陽虛는 燥의 氣運이 衰弱하므로 太陰의 本氣인 濕이 旺盛하여 氣化를 주도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陽盛은 燥의 氣運이 旺盛하고 濕이 衰弱하므로 陽明의 本氣인 燥가 氣化를 주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太陰經과 陽明經은 陽虛하여 濕의 氣運이 旺盛하면 濕을 따라 氣化하지만 陽盛하여 燥의 氣運이 旺盛하면 모두 燥를 따라 氣化하게 되므로, 經脈의 本氣가 旺盛하면 本氣를 따라 氣化하게 되고 本氣가 衰弱하면 中氣를 따라 氣化하게 되는 관계임을 알 수 있다.

이를 圖式化하면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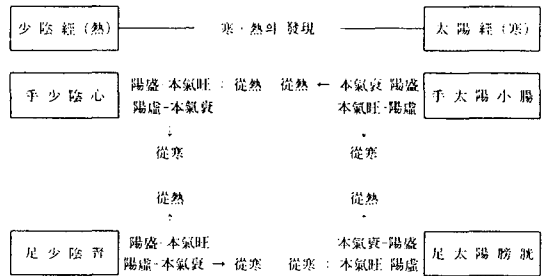
### 3) 少陰經과 太陽經의 氣化

手少陰이 司化經으로 君火(熱)의 氣化를 주관하고 足少陰이 從化經이 되어 熱로 氣化하여 少陰經이 熱의 氣化를 주관하지만, 從化經에 있어서 陽盛일 경우는 足少陰이 熱로 氣化하나 陽虛일 경우는 太陽의 寒을 따라 氣化한다. 또한 足太陽이 司化經으로 寒의 氣化를 주관하고 手太陽은 從化經이 되어 寒으로 氣化하여 太陽經이 寒의 氣化를 주관하지만, 從化經에 있어서 陽虛일 경우는 手太陽이 寒으로 氣化하나 陽盛일 경우는 少陰의 熱을 따라 氣化한다.

따라서 少陰經과 太陽經에 있어 氣化的 關鍵이 되는 陽虛와 陽盛의 의미를 少陰經과 太陽經이 주관하는 氣運이고 相互 中氣의 관계에 있는 寒과 熱을 대입하여 해석하고자 한다. 즉 少陰과 太陽은 寒과 熱을 겸하고 있으므로 寒과 熱 자체를 陰陽의 屬性에 따라 배속하면 熱을 陽에 배속

할 수 있는 바, 陽虛는 熱의 氣運이 衰弱하므로 太陽의 本氣인 寒이 旺盛하여 氣化를 주도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陽盛은 熱의 氣運이 旺盛하고 寒이 衰弱하므로 少陰의 本氣인 熱이 氣化를 주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少陰經과 太陽經은 陽虛하여 寒의 氣運이 旺盛하면 寒을 따라 氣化하지만 陽盛하여 熱의 氣運이 旺盛하면 모두 熱을 따라 氣化하게 되므로, 經脈의 本氣가 旺盛하면 本氣를 따라 氣化하게 되고 本氣가 衰弱하면 中氣를 따라 氣化하게 되는 관계임을 알 수 있다.

이를 圖式化하면 아래와 같다.



### 3. 從化規律의 醫學的 活用

#### 1) 從化規律과 生理

三陰三陽은 相互 中氣의 관계에 있는 經脈과 연락되어 臟腑의 表裏關係를 형성하고 있고<sup>34)</sup> 六氣의 調節關係를 형성하며, 이를 바탕으로 臟腑生理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 (1) 厥陰과 少陽

厥陰과 少陽은 相互 中氣의 관계에 있으면서 經絡이 서로 연락되어 臟腑의 表裏關係를 형성하고<sup>35)36)</sup> 風과 相火의 氣運을 겸하고 있으므로 厥

34) 陳鼎二, 江爾遜, 醫學探源, 四川科學技術出版社, 四川省, 1988, p. 21.

"臟腑各有一經脈, 遊行出入, 以布其化, 而經脈中所絡之處, 名爲中見也."

35) 陳鼎二, 江爾遜, 醫學探源, 四川科學技術出版社, 四川省, 1988, p. 21-22.

"足少陽膽經由膽走足, 中絡厥陰肝臟, 手少陽二焦經由二焦走手, 中絡厥陰包絡, 故少陽經中見厥陰, 手少陽二焦, 足少陽膽同司

陰의 風木과 少陽의 相火는 五行의 木이 火를 生하는 관계(37)38)를 적용하여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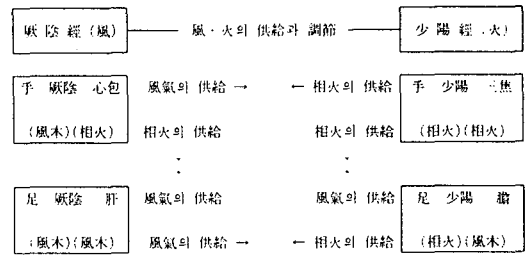
六氣調節의 측면에서 厥陰 風氣의 善行하고 木의 曲直하는 特性은 少陽相火 즉 溫和한 陽氣의 조절에 의거하여 敷布하고 條達하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少陽相火의 全身을 遊動하는 特性은 風木의 條達하는 特性에 힘입어 鬱滯되지 아니하므로(39) 相互 協助의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臟腑生理的인 측면에서 膽汁의 生成이 肝의 餘氣가 축적되어 형성된 것이고(40) 肝이 將軍之官으로서 謀慮가 出하는 바도 膽의 中正之官으로서 決斷을 出하는 기능을 통한 肝膽의 相濟로 이루어지는 기능이며(41), 心包가 相火의 根源이 되고 三焦가 相火의 作用을 담당하는 기능(42)43)이 있으며 肝·膽·心包·三焦가 모두 相火를 간직하고 있는 臟腑라는 점(44)에서 厥陰과 少陽이 相生의

關係를 바탕으로 한 生理的 協助關係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厥陰經과 少陽經 사이에는 風氣를 공급하여 相火의 遊動을 촉발하고 相火를 공급하여 風木의 條達을 助長하는 작용이 있으며, 厥陰經 자체에서도 心包經과 肝經의 相互作用 및 少陽經 자체에서도 三焦經과 膽經의 相互作用이 風氣과 相火의 協助關係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圖式化하면 아래와 같다.



## (2) 太陰과 陽明

太陰과 陽明은 相互 中氣의 관계에 있으면서 經絡이 서로 연락되어 臟腑의 表裏關係를 형성하고(45)46) 燥와 濕의 氣運을 겸하고 있으므로 太陰의 濕土와 陽明의 燥金은 燥濕의 相濟關係(47)48)로

相火. 是相火者. 少陽之本氣也. 故曰. '少陽之上. 火氣治之.' 謂二經之臟腑. 以火爲主. 是本氣也. 中見厥陰. 是其中有風氣居之也. 而其標爲少陽經. 則又主陽氣之初動也."

"足厥陰肝經屬風木. 手厥陰心包絡屬相火. 子從母化. 以風氣爲主. 故厥陰之上. 風氣治之. 手厥陰經中絡手少陽二焦經. 足厥陰經中絡足少陽膽. 故二經中見少陽也."

36)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서울. 1985. p. 82-83.

"心主手厥陰心包絡之脈……歷絡二焦……循小指次指出其端."

"二焦手少陽之脈……循屬三焦……至目銳眦."

"膽足少陽之脈……絡肝. 屬膽……循大指岐骨內. 出其端."

"肝足厥陰之脈……屬肝. 絡膽."

37) 郝印卿. 傷寒六經氣化學說尋根-六經氣化簡論之. 山西中醫. 1994. 10(1) : 52-55.

38) 陳鼎三. 江爾遜. 醫學探源. 四川科學技術出版社. 四川省. 1988. p. 170.

"厥陰之上. 風氣治之. 而有包絡之火. 少陽之上. 火氣治之. 而有肝木之風. 蓋火生於木. 風自火出. 風火之相生也."

39) 單玉堂. 傷寒論鍼灸配穴選注.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4. p. 28-29. 33-34.

40) 王叔和. 圖註難經脈訣. 合成美術印刷廠. 台南. 中華民國六十六. p. 14.

"膽者. 肝之腑. 肝藏血. 膽之精氣. 藉肝之餘氣. 滲入於膽. 積聚而成. 故同爲津液之腑. 目者. 肝之竅. 肝氣通於目. 故云能通眼. 目內藏不穢物以雜. 故云清淨. 因其內藏清淨. 外視所以得明也. 經曰. 厥陰之上. 風氣治之. 中見少陽."

41) 張介賓. 張氏類經. 圖書出版 成輔社. 서울. 1982. p. 30. "膽藥剛果之氣. 故爲中正之官. 而決斷所出. 膽附於肝. 相爲表裏. 肝氣雖強. 非膽不斷. 肝膽相濟. 勇敢乃成"

36)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서울. 1985. p. 82-83.

"心主手厥陰心包絡之脈……歷絡二焦……循小指次指出其端."

"二焦手少陽之脈……循屬二焦……至目銳眦."

"膽足少陽之脈……絡肝. 屬膽……循大指岐骨內. 出其端."

"肝足厥陰之脈……屬肝. 絡膽."

37) 郝印卿. 傷寒六經氣化學說尋根-六經氣化簡論之. 山西中醫. 1994. 10(1) : 52-55.

38) 陳鼎三. 江爾遜. 醫學探源. 四川科學技術出版社. 四川省. 1988. p. 170.

"厥陰之上. 風氣治之. 而有包絡之火. 少陽之上. 火氣治之. 而有肝木之風. 蓋火生於木. 風自火出. 風火之相生也."

39) 單玉堂. 傷寒論鍼灸配穴選注.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4. p. 28-29. 33-34.

40) 王叔和. 圖註難經脈訣. 合成美術印刷廠. 台南. 中華民國六十六. p. 14.

"膽者. 肝之腑. 肝藏血. 膽之精氣. 藉肝之餘氣. 滲入於膽. 積聚而成. 故同爲津液之腑. 目者. 肝之竅. 肝氣通於目. 故云能通眼. 目內藏不穢物以雜. 故云清淨. 因其內藏清淨. 外視所以得明也. 經曰. 厥陰之上. 風氣治之. 中見少陽."

41) 張介賓. 張氏類經. 圖書出版 成輔社. 서울. 1982. p. 30. "膽藥剛果之氣. 故爲中正之官. 而決斷所出. 膽附於肝. 相爲表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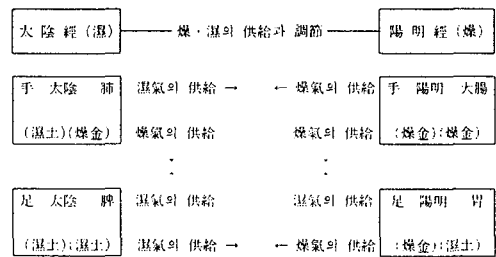
六氣調節의 측면에서 太陰의 濕土는 稼穡의 土로 濕의 氣化作用이 있어야 太陰의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나 濕의 太過를 기피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燥氣의 조절을 필요로 하고, 또한 陽明의 胃와 大腸은 燥氣를 主하고 燥氣를 바탕으로 水穀의 腐熟과 傳導機能을 수행하게 되지만 濕의 相濟가 있어야 燥氣의 太過를 방지할 수 있다<sup>49)</sup>.

臟腑生理的인 측면에서 脾는 本性이 濕을 主하여 喜燥惡濕하고 胃가 燥를 主하여 喜潤惡燥하는 특성이 均衡을 이루어 水穀의 腐熟이 일어나며<sup>50)51)52)53)54)</sup>, 肺가 寒濕의 邪氣에 쉽게 손상을 받으며<sup>55)56)</sup>, 大腸이 外部의 津液을 主하여 皮毛를 營養하고 燥濕의 調和를 바탕으로 糞便의 형성과 배출을 담당하는 기능<sup>57)58)59)</sup>에서 太陰과 陽

明의 燥濕相濟關係를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太陰經과 陽明經 사이에는 燥氣를 공급하여 濕氣의 太過를 방지하고 濕氣를 供給하여 燥氣의 太過를 방지하여 燥濕의 均衡을 유지하는 작용이 있으며, 太陰經 자체에서도 肺經과 脾經의 相互作用 및 陽明經 자체에서도 大腸經과 胃經의 相互作用이 燥氣과 濕氣의 供給·調節關係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圖式化하면 아래와 같다.



### (3) 少陰과 太陽

少陰과 太陽은 相互 中氣의 관계에 있으면서 經絡이 서로 연락되어 臟腑의 表裏關係를 형성하고<sup>60)61)</sup> 寒과 熱의 氣運을 겸하고 있으므로 少陰

47) 郝印卿, 傷寒六經氣化學說尋根-六經氣化簡論-, 山西中醫, 1994, 10(1): 52-55.  
 48) 陳鼎三, 江爾遜, 醫學探源, 四川科學技術出版社, 四川省, 1988, p. 170.  
 “太陰之上, 濕氣治之, 而有肺金之燥, 燥濕之相濟也, 是以脾喜燥而肺喜潤, 陽明之上, 燥氣治之, 而胃合太陰之濕, 臟腑雌雄之相配也, 是以陽明不從標本, 從中見太陰之濕化.”  
 49) 單玉堂, 傷寒論鍼灸配穴選注,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4, p. 26, 30.  
 50) 王 琦, 中醫臟象學,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7, p. 347.  
 51) 張隱庵, 黃帝內經素問集注, 上海科學技術出版社, 上海, 1991, p. 94.  
 “脾屬陰土, 喜燥惡濕, 苦乃火味, 故宜食苦以燥之.”  
 52) 黃元御, 黃元御醫書十一種 下卷,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0, p. 31.  
 “胃以純陽而含陰氣, 有陰則降”  
 53) 陳鼎三, 江爾遜, 醫學探源, 四川科學技術出版社, 四川省, 1988, p. 170.  
 “陰陽和平, 燥濕相合, 則飲食消化, 津液運行, 而肌肉豐厚.”  
 54) 王叔和, 圖註難經脈訣, 合成美術印刷廠, 台南, 中華民國六十六, p. 13.  
 “胃者, 脾之腑, 脾胃爲倉濼之官, 潔古曰, 脾胃之氣, 常欲通和, 胃爲成, 其化火, 象於天, 其氣熱, 脾爲己, 其化濕, 象於地, 故夏熱而上濕, 其氣相通則五穀腐熟而自消矣, 如濕多而熱少則成五泄, 熱多而濕少則多食而飢虛, 名曰消中, 皆脾胃之病也, 經曰, 太陰之上, 濕氣治之, 中見陽明.”  
 5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서울, 1985, p. 92.  
 “五臟所惡……肺惡寒”  
 56)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서울,

48) 陳鼎三, 江爾遜, 醫學探源, 四川科學技術出版社, 四川省, 1988, p. 170.  
 “太陰之上, 濕氣治之, 而有肺金之燥, 燥濕之相濟也, 是以脾喜燥而肺喜潤, 陽明之上, 燥氣治之, 而胃合太陰之濕, 臟腑雌雄之相配也, 是以陽明不從標本, 從中見太陰之濕化.”  
 49) 單玉堂, 傷寒論鍼灸配穴選注,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4, p. 26, 30.  
 50) 王 琦, 中醫臟象學,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7, p. 347.  
 51) 張隱庵, 黃帝內經素問集注, 上海科學技術出版社, 上海, 1991, p. 94.  
 “脾屬陰土, 喜燥惡濕, 苦乃火味, 故宜食苦以燥之.”  
 52) 黃元御, 黃元御醫書十一種 下卷,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0, p. 31.  
 “胃以純陽而含陰氣, 有陰則降”  
 53) 陳鼎三, 江爾遜, 醫學探源, 四川科學技術出版社, 四川省, 1988, p. 170.  
 “陰陽和平, 燥濕相合, 則飲食消化, 津液運行, 而肌肉豐厚.”  
 54) 王叔和, 圖註難經脈訣, 合成美術印刷廠, 台南, 中華民國六十六, p. 13.  
 “胃者, 脾之腑, 脾胃爲倉濼之官, 潔古曰, 脾胃之氣, 常欲通和, 胃爲成, 其化火, 象於天, 其氣熱, 脾爲己, 其化濕, 象於地, 故夏熱而上濕, 其氣相通則五穀腐熟而自消矣, 如濕多而熱少則成

의 君火과 太陽의 寒水는 水升火降의 관계를 통한 寒熱의 조절(62)로 해석할 수 있다.

六氣調節의 측면에서 少陰의 心은 火에 속하고 腎은 水에 속하여 水火의 특성이 相補相成하고 相制相約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上下의 水火가 相交하여 生化作用을 발휘하는 것이니 腎水가 心火의 制約을 받지 않으면 泛濫하고 心火가 腎水의 滋養을 받지 않으면 亢盛되는 결과를 초래한다(64). 太陽의 膀胱은 水腑에 小腸은 火腑에 해당하여 水腑는 寒水의 腑이고 火腑는 日光의 腑로 日光이 없으면 寒水가 氣化할 수 없으므로 太陽寒水의 氣化는 모두 熱에 의지하여 이루어지는 바, 그 熱은 中氣의 관계에 있는 手少陰의 心火와 足少陰의 腎陽에서 비롯된다(65).

臟腑生理的인 측면에서 心은 心火를 바탕으로 全身으로의 血行과 精神活動을 주관하고(66)(67) 腎이 寒水의 特性을 바탕으로 人身의 精을 저장하고 骨髓를 다스리지만(68)(69), 心腎이 水火를 대표하는 臟으로 火中에 眞陰이 존재하여 心火가 眞陰을 따라 下降하며 水中에 眞陽이 존재하여 腎水

가 眞陽을 따라 上升하므로 心血中の 眞液이 下降하고 腎精中の 眞陽이 上升하여 水火相交가 이루어져야 生化作用이 일어난다(70)(71)(72). 또한 小腸은 心과 表裏가 되므로 心火를 이용하여 水穀의 消化를 완성하고 淸濁을 分別하여 大小便의 形成에 參與하며(73)(74), 膀胱 역시 熱氣를 바탕으로 한 氣化作用에 의하여 小便을 배출하므로(75)(76) 小腸과 膀胱에서도 水升火降의 生理關係를 찾아 볼 수 있다.

따라서 少陰經과 太陽經 사이에는 寒氣를 공급하여 熱氣의 太過를 방지하고 熱氣를 供給하여 寒氣의 太過를 방지하여 寒熱의 調節을 유지하는 작용이 있으며, 少陰經 자체에서도 心經과 腎經의 相互作用 및 太陽經 자체에서도 小腸經과 膀胱經의 相互作用이 寒氣과 熱氣의 供給·調節關係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圖式化하면 아래와 같다.

6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서울, 1985, p. 80-81.  
 “心手少陰之脈……絡小腸……循小指之內, 出其端.”  
 “小腸手太陽之脈……絡心……屬小腸……至目內眥.”  
 “膀胱足太陽之脈……絡腎, 屬膀胱……至小趾外側.”  
 “腎足少陰之脈……屬腎, 絡膀胱.”

62) 郝印卿. 傷寒六經氣化學說尋根-六經氣化簡論之一. 山西中醫, 1994, 10(1) : 52-55.

63) 陳鼎三, 江爾遜. 醫學探源. 四川科學技術出版社, 四川省, 1988, p. 170.  
 “少陰之上, 君火主之, 而有腎臟之水, 太陽之上, 寒水主之, 而有巨陽之陽. 陰陽標本之相合也, 是以水上火下, 斯成既濟之無咎.”

64) 單玉堂. 傷寒論鍼灸配穴選注.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4, p. 31-32.

65) 單玉堂. 傷寒論鍼灸配穴選注.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4, p. 23-24.

66) 張介賓, 張氏類經. 圖書出版 成輔社, 서울, 1982, p. 462.  
 “心主血脈, 應火之動而運行周身也”

67) 張介賓, 張氏類經. 圖書出版 成輔社, 서울, 1982, p. 41.  
 “壽爲心火之志”

6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서울, 1985, p. 11.  
 “腎者主水, 受五臟六腑之精而藏之, 故五臟盛乃能瀉”

69) 張介賓, 張氏類經. 圖書出版 成輔社, 서울, 1982, p. 462.  
 “腎主骨髓, 應水石之沈而爲立身之幹, 爲萬化之原也”

70) 張介賓. 景岳全書.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7, p. 4.  
 “道產陰陽, 原同一氣, 火爲水之主, 水即火之源, 水火原不相離也”

71) 張介賓, 張氏類經. 圖書出版 成輔社, 서울, 1982, p. 4.  
 “坎爲水爲月, 在人爲腎, 腎藏精, 精中有正陽之炁, 炎升於上, 離爲火爲日, 在人爲心, 心藏血, 血中有眞一之液, 流降於下, 此言坎離之交構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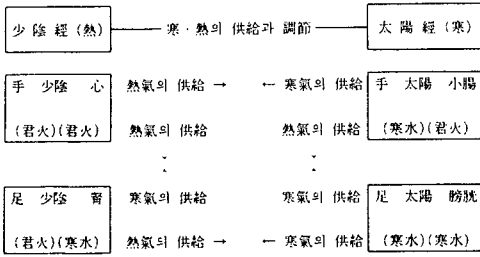
72) 翟慕東, 王小平. 論少陰氣化運動的臨床意義. 四川中醫, 1994, 1 : 4-6.

73) 王叔和. 圖註難經脈訣. 合成美術印刷廠, 台南, 中華民國八十六, p. 13.  
 “心者, 火之屬也, 火主時令則萬物皆盛, 小腸者, 心之腑, 乃受盛之官, 承奉胃司而受盛糟粕, 心屬火, 火能化物, 糟粕受已, 復此傳入大腸, 故云心與小腸受盛. 經曰, 少陰之上, 火氣治之, 中見太陽.”

74) 朱震亨. 金元四大家醫學全書(丹溪心法). 天津科學技術出版社, 天津, 1996, p. 1170.  
 “腎主水, 膀胱爲之腑, 水滲於膀胱而泄於小腸, 實相通也, 然小腸獨應於心者何哉? 蓋陰不可以無陽, 水不可以無火, 水火既濟, 上下相交”

75) 李 梴. 國譯編註醫學入門Ⅳ. 南山堂, 서울, 1984, p. 50.  
 “膀胱爲民火”

76) 王叔和. 圖註難經脈訣. 合成美術印刷廠, 台南, 中華民國八十六, p. 13.  
 “膀胱者, 腎之腑, 乃州都之官, 津液藏焉, 腎主五液, 故膀胱與腎爲津慶. 經曰, 太陽之上, 寒氣治之, 中見少陰.”



## 2) 從化規律과 病因

三陰三陽의 氣化作用이 標本中氣의 從化規律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疾病의 발생도 標, 本, 中氣에 서 비롯되는 바, 三陰三陽의 從化規律과 六氣發現規律이 疾病發生의 關건이 된다<sup>77)78)79)</sup>.

### (1) 厥陰과 少陽

三陰三陽의 從化規律에서 厥陰은 從中(火)하고 少陽은 從本(火)하므로 기본적으로 厥陰과 少陽에서는 火가 疾病發生의 關건이 된다. 또한 六氣發現規律에서 厥陰은 本氣가 旺盛할 경우는 風으로 本氣가 쇠약할 경우는 火로 發現되고, 少陽은 本氣가 旺盛할 경우는 火로 本氣가 쇠약할 경우는 風으로 發現된다. 따라서 厥陰과 少陽에서는 本氣의 衰旺에 따라 風이나 相火에 의한 疾病이 發生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厥陰이 從中氣하고 少陽이 從本하여 氣化의 規律이 火를 중심으로 설정된 것은 厥陰이 風의 공급처이고 少陽이 相火의 공급처로서 상호 협조와 촉진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평형이 失調되어 질병을 일으키게 될 경우는 風과 火의 현상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風이 發하면 많은 경

우에 火의 현상을 겸하게 되므로<sup>80)</sup> 질병에 있어서도 從化規律에 따라 火를 중심으로 發生한다고 할 수 있다.

### (2) 太陰과 陽明

三陰三陽의 從化規律에서 太陰은 從本(濕)하고 陽明은 從中(濕)하므로 기본적으로 太陰과 陽明에서는 濕이 疾病發生의 關건이 된다. 또한 六氣發現規律에서 太陰은 本氣가 旺盛할 경우는 濕으로 本氣가 쇠약할 경우는 燥로 發現되고, 陽明은 本氣가 旺盛할 경우는 燥로 本氣가 쇠약할 경우는 濕으로 發現된다. 따라서 太陰과 陽明에서는 本氣의 衰旺에 따라 濕이나 燥에 의한 疾病이 發生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太陰이 從本하고 陽明이 從中氣하여 氣化의 規律이 濕을 중심으로 설정된 것은 太陰이 濕의 공급처이고 陽明이 燥의 공급처로서 상호 조절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평형이 失調되어 질병을 일으키게 될 경우는 燥와 濕의 현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濕氣의 부족은 燥의 현상을 초래하고 燥氣의 부족은 濕의 현상을 초래하는 상호 의존의 관계이므로 질병에 있어서도 從化規律에 따라 濕을 중심으로 發生한다고 할 수 있다.

### (3) 少陰과 太陽

三陰三陽의 從化規律에서 少陰은 從本(熱)從標(寒)하고 太陽도 從本(寒)從標(熱)하므로 기본적으로 少陰과 太陽에서는 寒熱調節이 疾病發生의 關건이 된다. 또한 少陰은 本氣가 旺盛할 경우는 熱로 本氣가 쇠약할 경우는 寒으로 發現되고, 太陽은 本氣가 旺盛할 경우는 寒으로 本氣가 쇠약할 경우는 熱로 發現된다. 따라서 少陰과 太陽에서는 本氣의 衰旺에 따라 寒이나 熱에 의한 疾病이 發生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少陰과 太陽이 從本從標하여 氣化의 規律이 寒과 熱을 중심으로 설정된 것은 少陰이 熱의 공급처이고 太陽이 寒의 공급처로서 상호 조절의

77) 陳夢雷 外, 古今圖書集成 醫部全錄 第一冊,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2. p. 822.

"六氣各有所從之標本, 而百病皆當知標本. ....百病之生, 有生於本者, 有生於標者, 有生於中氣者, 氣化與是身相須也."

78) 張隱庵, 黃帝內經素問集注, 上海科學技術出版社, 上海, 1991. p. 352.

"病生於本者, 生於風寒熱濕燥火也, 生於標者, 生於二陰三陽之氣也"

79) 黃元御, 黃元御醫書十一種 下卷,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0. p. 39.

"病則或見司化者之本氣, 或見從化者之本氣, 或司化者而見從化之氣, 或從化者而見司化之氣, 全視乎本氣之衰旺焉"

80) 劉完素, 素問玄機原病式,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3. p. 30.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평형이 失調되어 질병을 일으키게 될 경우는 寒이나 熱의 현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少陰이 從本하는 것은 熱을 중심으로 하고 從標하는 것은 寒을 중심으로 하며, 太陽이 從本하는 것은 寒을 중심으로 하고 從標하는 것은 熱을 중심으로 하여 氣化가 일어나는 것 이기에 질병에 있어서도 從化規律에 따라 寒과 熱을 중심으로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 3) 從化規律과 治法

三陰三陽의 氣化作用과 疾病의 발생이 標本中氣의 從化規律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從化規律에서 六氣의 相互調節을 통하여 평형을 유지<sup>81)</sup>하는 治法을 도출할 수 있다<sup>82)83)</sup>.

#### (1) 厥陰과 少陽

厥陰과 少陽은 本氣의 衰旺에 따라 風과 火로 발현되지만 厥陰은 從中(火)하고 少陽은 從本(火)하여 火가 질병발생의 관건이 되는 바, 이는 厥陰風木과 少陽相火는 風生火의 관계에 있고 疾病이 발생하면 風과 火가 겸하여 發病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sup>84)</sup>. 따라서 이때의 治法은 瀉火를 중심으로 설정될 수 있으므로<sup>85)86)87)</sup> 厥陰과 少陽에서의 治法은 從化規律

에서 從하는 바를 따라 火를 조절하는 것이 치료의 관건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 太陰과 陽明

太陰과 陽明은 本氣의 衰旺에 따라 燥와 濕으로 발현되지만 太陰은 從本(濕)하고 陽明은 從中(濕)하여 濕이 질병발생의 관건이 되는 바, 燥와 濕은 상반되는 개념으로 濕氣의 太過는 燥氣의 不足이고 濕氣의 不足은 燥氣의 太過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濕의 조절이 결국 燥의 조절과 같은 결과를 얻게 되므로 이때의 治法은 濕을 중심으로 설정될 수 있으며<sup>88)89)90)</sup> 太陰과 陽明에서의 治法은 從化規律에서 從하는 바를 따라 濕을 조절하는 것이 燥濕의 평형을 조절하는 것이다.

#### (3) 少陰과 太陽

少陰과 太陽은 本氣의 衰旺에 따라 寒과 熱로 발현되고, 또한 從本하기도 하고 從標하기도 하므로 寒과 熱이 질병 발생의 관건이 되는 바, 少陰의 從本(君火)에 해당하는 것은 熱이고 從標(少陰)에 해당하는 것은 寒이며, 太陽의 從本(寒水)에 해당하는 것은 寒이고 從標(太陽)에 해당하는 것은 熱이니 寒熱의 조절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

81) 翟慕東, 從氣化運動簡(傷寒論)六經病變規律, 四川中醫, 1994, 11 : 3-5.

82) 陳夢雷 外, 古今圖書集成 醫部全錄 第一冊,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2, p. 822.

“人之治病者, 有取本而得者, 有取標而得者, 有取中氣而得者, 有兼取標本而得者.”

83) 張隱庵, 黃帝內經素問集注, 上海科學技術出版社, 上海, 1991, p. 354.

“神巧之工, 知標本之病生, 則知有標本之氣化, 知標本之氣化, 則能用標本之治法矣, 故知標與本, 用之不殆, 明知順逆, 正行無間, 此之謂也”

84) 劉完素, 素問玄機原病式,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3, p. 30.

85) 張子和, 儒門事親 十四卷, 大星文化社, 서울, 1993, p. 13.

“少陽從本爲相火……厥陰從中火是家”, “膽與二焦尋火治, 肝和包絡都無異”

86) 喻昌, 醫門法律, 東南出版社, 서울, 1986, p. 71-72.

“少陽相火, 從火化爲本, 太陰濕土, 從濕化爲本, 其治但從火濕之本, 不從少陽太陰之標也……厥陰風木, 木從風化, 風爲本, 厥

陰爲標, 其治不從標本而從乎中, 中者中見之氣也……厥陰與少陽爲表裏, 其氣互通於中, 是以風木從相火之中氣爲治”

87) 陳鼎三, 江爾遜, 醫學探源, 四川科學技術出版社, 四川省, 1988, p. 170.

“蓋火生於木, 風自火出, 風火之相生也, 故火熾者, 當先平其風木, 風烈者, 宜先息其火炎.”

88) 張子和, 儒門事親 十四卷, 大星文化社, 서울, 1993, p. 13.

“太陰從本濕土坐……陽明從中濕是我”, “脾肺常將濕處求, 胃與大腸同濕治”

89) 喻昌, 醫門法律, 東南出版社, 서울, 1986, p. 71-72.

“少陽相火, 從火化爲本, 太陰濕土, 從濕化爲本, 其治但從火濕之本, 不從少陽太陰之標也, 陽明燥金, 金從燥化, 燥爲本, 陽明爲標……其治不從標本而從乎中, 中者中見之氣也, 蓋陽明與太陰爲表裏, 其氣互逆於中, 是以燥金從濕土之中氣爲治”

90) 陳鼎三, 江爾遜, 醫學探源, 四川科學技術出版社, 四川省, 1988, p. 170.

“如陰陽不和, 則能食而瘦矣, 故脾胃之陰濕太過者, 宜燥之溫之, 陽明之燥熱已甚者, 宜苦寒以泄之, 肺而大腸病秋金之燥者, 宜清涼而潤之, 感太陰之濕者, 宜溫熱而燥之, 此平治陰陽燥濕之道也.”

라서 이때의 治法은 寒熱의 感한 바에 따라 攻裏나 解表, 溫補를 다르게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니(91)92)93) 少陰과 太陽에서의 治法은 從化規律에서 從하는 바에 따라 寒熱을 조절하는 것이 치료의 관건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三陰三陽의 從化規律을 분석하고 醫學的 活用に 대하여 고찰한 바, 風과 相火·燥와 濕·寒과 熱의 관계는 모두 相互調節을 통하여 평형을 유지하는 기전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人體의 生理, 病理, 治療에 이르기까지 모두 적용하여 활용할 수 있는 이론체계로 생각된다.

#### IV. 結論

三陰三陽의 標本中氣와 從化規律을 분석하고, 六氣의 發現을 중심으로 醫學的 活用に 대하여 歷代 醫家들의 學說을 바탕으로 고찰한 바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三陰三陽의 從化規律은 三陰三陽의 標本이 갖는 陰陽屬性이 같은 경우 本氣를 중심으로 從化規律이 설정되고 있고, 標本이 갖는 陰陽屬性이 다를 경우 中氣의 標本이 갖는 陰陽屬性和 同一한가의 여부에 따라 從化規律이 설정되고 있다.

2. 十二經脈은 本氣와 中氣를 겸하고 있으므로 六氣發現은 本氣의 衰旺에 따라 本氣가 發現될 수도 있고 中氣가 發現될 수도 있으며, 이는 表裏經이 屬絡關係를 형성하고 있어 風과 相火, 燥와 濕, 寒과 熱이 相互調節을 통하여 均衡과 調和를 유지하는 기전으로 解析할 수 있다.

3. 三陰三陽의 從化規律을 통하여 臟腑와 經脈의 生理機能을 설명할 수 있고, 六氣調節의 不調和로 인한 疾病에서 나타나는 六氣의 發現과 治法은 三陰三陽의 從化規律에서 從하는 바가 관건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 Abstract =

### A Research on the rule of following of three *Ŭm* and three *Yan*

Kim, Ho-Hyun

Department of Physiolog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Se-Myung Univ. Jechon, Korea

This study was undertaken to define the expression rule of six vital substances for human life(六氣) in Meridians and the rule of following of three *Ŭm* and three *Yan*. In order to investigate the expression rule of six vital substances for human life(六氣), incident(標)-fundamental(本) and *Ki* of middle energizer(中氣) of three *Ŭm* and three *Yang*(三陰三陽) were reviewed.

1. The rule of following is formed centering around fundamental *Ki*(本氣) between incident(標) and fundamental(本). And in case the *Ŭm* and *Yang*(陰陽) disposition of incident(標) and fundamental(本) is different, whether the *Ŭm* and *Yang*(陰陽) disposition of incident(標) and fundamental(本) is same as those of *Ki* of middle energizer(中氣), is the key point in following fundamental and activating of the vital energy(氣化).

2. As twelve channels(十二經脈) have not only fundamental *Ki*(本氣) but also *Ki* of middle energizer(中氣) at the same time, in expression of six vital substances for human life(六氣), if the fundamental *Ki*(本氣) is stronger, fundamental *Ki*(本氣) can be expressed or if the fundamental *Ki*(本氣)

91) 張子和, 儒門事親 十四卷, 大星文化社, 서울, 1993, p. 13.

“太陽少陰標本從, 陰陽二氣相包裹”, “惡寒表熱小腸溫, 惡熱表寒心腎熾……四經有熱有寒時, 攻裏解表細消息”

92) 喻昌, 醫門法律, 東南出版社, 서울, 1986, p. 71.

“太陽寒水, 本寒標熱, 少陰君火, 本熱標寒, 其治或從本, 或從標, 審寒熱而異施也”

93) 陳鼎二, 江爾遜, 醫學探源, 四川科學技術出版社, 四川省, 1988, p. 170.

“若水不相濟, 則上焦火盛, 咽痛, 口瘡, 而心懸如病機, 火不下交, 則下焦寒, 而足膝厥冷, 下利清穀, 故當調攝其水火之升降焉.”



is weaker, *Ki* of middle energizer(中氣) can be expressed.

3. Twelve channels which is connected with each other through the relation of the interior and the exterior can be regarded as a system, in which Wind(風) and Fire(火), Dryness(燥) and Dampness(濕), Cold(寒) and Heat(熱) maintain balance through mutual control.

4. We can see that in the disease caused by the unbalance of six vital substances for human life(六氣), expression of six pathogenic factor and controlment of six vital substances for human life(六氣) are made up after the following one in the rule of following(從化規律).

Key words : three *Ūm* and three *Yang*, the rule of following, six vital substances for human life, incident, fundamental, *Ki* of middle energizer

### 參考文獻

1. 金完熙 外, 東醫生理學, 慶熙大學校 出版局, 서울, 1993, pp. 127-128.
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서울, 1985, pp. 11, 88, 92, 238, 241, 302.
3.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서울, 1985, p. 36.
4. 金丁雨, 金吉萱, 經絡의 氣化生理에 관한 研究, 東醫生理學會誌, 1990, 5(1) : 119-149.
5. 金昊顯, 經脈의 六氣發現規律에 관한 研究, 世明大學校 韓醫學研究所 論文集, 1998, 1 : 37-53.
6. 申興默, 金吉萱, 十二經脈의 六氣 調節生理에 관한 研究(II), 東西醫學, 1991, 16(3) : 20-35.
7. 尹暢烈, 六氣의 標本中氣와 疾病發生機轉에 관한 研究, 大田大學校 韓醫學研究所 論文集, 1997, 5(2) : 535-542.
8. 高士宗, 皇帝素問直解, 科學技術文獻出版社, 北京, 1982, p. 482, 677.
9. 單玉堂, 傷寒論鍼灸配穴選注,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4, pp. 23-24, 26, 28-34.
10. 楊 力, 中醫運氣學, 北京科學技術出版社, 北京, 1995, p. 90.
11. 王 琦, 中醫臟象學,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7, pp. 347, 987.
12. 王 冰, 黃帝內經素問, 圖書出版 一中社, 서울, 1993, p. 246.
13. 王叔和, 圖註難經脈訣 一卷, 合成美術印刷廠, 台南, 中華民國六十六, p. 13-14.
14. 劉完素, 素問玄機原病式,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3, p. 30.
15. 喻 昌, 醫門法律, 東南出版社, 서울, 1986, p. 71-72.
16. 李東垣 外, 東垣十種醫書, 大星文化社, 서울, 1983, p. 105.
17. 李 梴, 國譯編註醫學入門 I, 南山堂, 서울, 1984, pp. 468, 484.
18. 李 梴, 國譯編註醫學入門IV, 南山堂, 서울, 1984, p. 50.
19. 張介賓, 張氏類經, 圖書出版 成輔社, 서울, 1982, pp. 4, 30, 41, 462, 824-825.
20. 張介賓, 類經圖翼, 圖書出版 成輔社, 서울, 1982, p. 140.
21. 張介賓, 景岳全書,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7, p. 4.
22. 張隱庵, 馬元臺, 黃帝內經素問, 成輔社, 서울, 1975, p. 435.
23. 張隱庵, 黃帝內經素問集註, 上海科學技術出版社, 上海, 1991, p. 94, 242, 263, 353.
24. 張子和, 儒門事親 十四卷, 大星文化社, 서울, 1993, p. 13-14.
25. 朱震亨, 金元四大家醫學全書(丹溪心法), 天津科學技術出版社, 天津, 1996, p. 1170.
26. 陳夢雷 外, 古今圖書集成 醫部全錄 第一冊,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2, p. 618, 822.
27. 陳鼎三, 江爾遜, 醫學探源, 四川科學技術出版社, 四川省, 1988, p. 170.
28. 黃元御, 黃元御醫書十一種 下卷,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0, pp. 31, 37-39.
29. 黃元御, 黃元御醫書十一種 中卷,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0, p. 542.

30. 若 秋, 張志聰·陣修園傷寒氣化說之異同論, 福健中醫藥, 1988, 19(6) : 8-11.
31. 翟慕東, 從氣化運動簡《傷寒論》六經病變規律, 四川中醫, 1994, 11 : 3-5.
32. 翟慕東, 王小平, 論少陰氣化運動的臨床意義, 四川中醫, 1994, 1 : 4-6.
33. 郝印卿, 傷寒六經氣化學說尋根-六經氣化簡論之一, 山西中醫, 1994, 10(1) : 52-55.